

JYT

JOURNAL OF
YOUNGSAN THEOLOGY

영산신학저널

2013

Volume 27

성령-그리스도론: 그리스도의 삼중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삼중 형태로*

미하엘 벨커

|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조직신학 |
mw@uni-hd.de

국문 초 록

이 논문은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뱅의 두 가지 뛰어난 통찰력으로부터 시작된다. 첫째, 부활하시고 승화하신 그리스도는 결코 성령의 임재 없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화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과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 이후의 삶 속으로 인도되었다. 둘째,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셨는지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살펴 보아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 예언자직 그리고 제사장직.

또한 논문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관한 가르침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과 교단들로부터 가시적으로 수용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회들의 가르침과 생명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이 삼중직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통찰력으로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의 삶(왕직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2.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언자직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3.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제사장직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이러한 통찰력은 성령의 권능 안에서 차별화된 그리스도의 교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본 지식을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찰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셔서 통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선이해를 가능케 한다. 사랑과 돌봄을 통한 봉사의 일에 있어서, 진리와 정의를 찾는 공동체들의 예언적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예배적, 제의적, 영송적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지상 재림과 통치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부활절 이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모으시고, 활기찬 생명력을 공급하시며 품격을 상승시키신다.

I. 들어가는 말

창조하시고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성령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파악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 칼뱅(Johannes Calvin)의 두 가지 인식의 열쇠가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그 첫 번째 인식의 열쇠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성령 없이는 결코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남녀 증인들을 자신의 부활 이후의 삶과 연관시키고 계신다. 자신의 남녀 증인들 곧 부활절 이후와 오순절 이후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인 이들을 통하여 부활하신 분은 자신의 부활절 이후의 실존을 이 세상에 실현하고 있다.

칼뱅은 자신의 위대한 개혁신학적 교의학에서 이러한 인식을 아주 인상 깊게 강조하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성령은 “그 자신만을 위해(privatim)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와 목마른 자들에게 자신의

* 이 논문은 한세대 해외 석학 초청 특강(2012년 3월 26일)에서 “Geist-Christologie: Vom dreifachen Amt Christi zur dreifachen Gestalt des Reiches Gottes”(영-그리스도론: 그리스도 삼 직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형태로)라는 주제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충만함을 흘러넘치도록 부어 주셔야만 한다!”¹⁾ 즉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는 성령 없이는 그리고 성령을 받은 남녀 증인들 없이는 현존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칼뱅이 제공하는 두 번째 인식의 열쇠를 통해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차별화하며 구체화하는 사역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두 번째 인식의 열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영의 힘과 그의 나라의 도래를 부활절 이전의 삶과 연관해서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할 때 예수의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삶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은 분명해진다. 단지 예수의 부활 이전의 삶에 대한 연관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부활에 대한 연관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신 분께로 그 방향을 맞추어 구약성서 전승의 폭넓은 기억 공간 및 기대 지평과의 견고한 결합이 가능하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이러한 인식의 열쇠를 통해 더 새롭고 폭넓은 에큐메니컬적 합의를 기독교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칼뱅의 두 번째 인식의 열쇠는 다음과 같다. 즉, “무엇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며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왔는지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의 세 가지 직분 곧 예언자직, 왕직 그리고 제사장직에 주목해야 한다.”²⁾

예수의 삼중직(munus triplex Christi)에 관한 교리는 공적이고 종말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주 다양하고 풍부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예수의 삼중직은 구약성서의 전승과의 연관을 밝혀 주며, 신약성서의 증언들이 항상 되풀이해서 암시하고 있는 부활절 이전과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기름 부음을 받은 왕들, 제사장들 그리고 예언자들의 사역과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1) Johannes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CR 30), Guilielmus Baum, Eduardus Cunitz, and Eduardus Reuss, eds. (Braunschweig: C. A. Schwetschke & Son, 1864), 310 (II, 15, 5; II, 15, 2); 참조, Dumitru Staniloae, *Orthodoxe Dogmatik II, Ökumenische Theologie* 15 (Zürich: Benziger/Gütersloh: Gütersloher, 1990), 174ff.

2) Calvin, *Institutio*, 307 (II, 15, 1).

슐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³⁾, 바르트(Karl Barth)⁴⁾, 웨인라이트(Geoffrey Wainwright)⁵⁾ 그리고 그 밖의 개혁신학과 감리교 신학 전통의 중요한 신학자들은 이러한 교리들을 수용하여 발전시켰다. 요한 게르하르트(Johann Gerhard)⁶⁾에 의해 이 교리가 루터교 신학에 도입되었다. 정통주의 교회의 교의학⁷⁾과 마찬가지로 로마가톨릭 교의학⁸⁾도 이 교리를 수용하였다.

에드문트 슐링크(Edmund Schlink)는 자신의 에큐메니컬 교의학에서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관한 교리를 확장한 것은 에큐메니컬적으로 유일한 현상이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리는 교회 분열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그 교의학적 형태를 갖추었으며, 교회 분열 역사의 전 과정을 거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진술들과 함께 공동의 교리로 확립되었기 때문이다.”⁹⁾

삼중직의 순서, 각각의 중요성 그리고 그 형태는 신학의 거장들에 따라 매우 다르게 이루어졌다. 칼뱅은 먼저 예언자직에 대하여 언급하는데, 이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번도 구원의 말씀 없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신

3) Friedrich Schleiermacher, *Der christliche Glaube nach den Grundsätzen der evangelischen Kirche im Zusammenhange dargestellt*, Bd. 2, (hg.) Martin Redeker, 7. Aufl. (Berlin: de Gruyter, 1960), §§ 102-05.

4) Karl Barth, *Die kirchliche Dogmatik* (Zürich: TVZ Theologischer Verlag, 1932-1986), IV/1, 231ff; IV/2, 173ff; IV/3, 12ff, 52ff, 206ff.

5) Geoffrey Wainwright, *For Our Salvation: Two Approaches to the Work of Christ*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1997), 109ff. 웨인라이트는 모든 삼중직에서 “기독교적, 세례적, 구원론적, 선교적” 그리고 “교회론적” 용법을 구분한다.

6) Johann Gerhard, *Loci Theologici*, 1610-22 (Berolini: Schlawitz, 1866), Loc. IV, cap. 15.

7) Staniloae, *Orthodoxe Dogmatik* II, 89ff, 178ff; P. Trempeles, *Dogmatik der orthodoxen katholischen Kirche (griechisch)*, Bd. II (Athen: Adelphotes Theologon “Zoe”, 1959), 143-203; 참조, Eusebius von Caesarea, *Hist. Eccl.* I, 3.

8) Matthias Joseph Scheeben, *Handbuch der katholischen Dogmatik*, Bd. 5.2 (Freiburg: Herder & Co, 1954), 226-305; 참조, Thomas von Aquin, *Die Summa theologiae* III, (hg.) Andreas Speer (Berlin: Walter de Gruyter, 2005), 22 art. 1 ad 3.

9) Edmund Schlink, *Ökumenische Dogmatik. Grundzüg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3), 414.

의 백성이 ‘중재자의 오심’을 고대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다.¹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에게 단지 ‘모든 지혜로 충만한’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아들과 딸들에게(골 3:1)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도록 하신다.¹¹⁾ 왕직으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손을 통하여 언제나 당신의 교회에 피난처와 도움이 되기를 원하신다.” 동시에 칼뱅은 그리스도가 영원한 영적 나라의 ‘영원하신 왕’ 이심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신자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하고 계심을 강조한다. 또한 여기서 세례와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분깃이 주어진다.¹²⁾ 제사장직을 칼뱅은 히브리서 7-10장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변하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시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동시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제사장인신 ... 그분 안에’ 있게 되고,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의 희생을 드리며 이로써 ‘하늘에 있는 가장 거룩한 곳에 ... 이르게’ 되는 것이다.¹³⁾

슐라이어마허는 먼저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이 직분은 ‘가르침, 예언 그리고 기적 행함’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부활 이전의 예수에 방향을 맞추어 이분은 제사장직의 정점이자 그 마지막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언의 정점과 ... 마지막’이라고 강조하고 있다.¹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서 예수의 ‘온전한 율법 성취 혹은 순종의 행위’와 ‘화해하는 죽음 혹은 고난 받는 순종’, 마지막으로 ‘아버지 앞에서 믿는 자들을 대변하는 일’을 구별하고 있다.¹⁵⁾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직은 하나님 인식을 가지고 ‘순전히 영적인 통치’를 함으로써 정치적 종교뿐만 아니라 신정국가를 종식시킨다. 이는

10) Calvin, *Institutio*, 307 (II, 15, 1).

11) Ibid., 308 (II, 15, 2).

12) Ibid., 309 (II, 15, 3), 308-11 (II, 15, 3-5).

13) Ibid., 312 (II, 15, 6).

14) Schleiermacher, *Der christliche Glaube*, Bd. 2, 108, 112, 135.

15) Ibid., 118.

“신자들의 공동체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요구하는 모든 것은 언제나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점에서 그렇다.”¹⁶⁾

칼 바르트느 먼저 대제사장직, 이어서 왕직, 그리고 끝으로 예언자직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하지만 대제사장직에 대한 설명을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으신 재판관”이라고 형식화함으로써 제의적 사유형식을 법적 사유형식으로 대체하고 있다.¹⁷⁾ 게다가 그는 법적 그리고 제의적 비유 외에 신약성서와 관련하여 재정적 또는 군사적 비유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¹⁸⁾

예수의 삼중직에 관한 교리에 대한 상이한 배열, 중요성 부여 그리고 그 내용 전개는 부활 이전의 예수의 삶에 우선적으로 그 방향을 맞추느냐 혹은 승천한 그리스도에 일차적으로 그 방향을 맞추느냐에 의존하고 있다. 즉, “이 지상에 있는 자로서의 예수는 자신의 선포를 통하여, 그리고 높임 받으신 분으로서는 사도들을 보내심을 통하여 예언자직을 수행하셨으며, 복음을 통하여 이 사역을 계속해서 수행하신다. 이 지상에 있는 자로서의 예수는 죽음으로 자신을 내주심으로 자신의 제사장직을 수행하시고, 높임 받으신 분으로서의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로 섬으셔서 이 사역을 수행하신다. 예수의 왕직은 그가 높임 받은 분으로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비로소 생겨났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의 위력과 죽음의 권세에 대한 지상적 예수의 주권 속에 이미 있는 것이다.”¹⁹⁾

신학의 거장들에게서 나타나는 삼중직에 대한 상이한 강조들은 우선 이 교리의 가치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²⁰⁾ 사실상 이 교리에 대한 관심은

16) Ibid., 144, 136.

17) Barth, *Die kirchliche Dogmatik*, IV/1, 231, 231ff, 302ff.

18) Ibid., 301f; Sigrid Brandt, *Opfer als Gedächtnis: Auf dem Weg zu einer befreienden theologischen Rede von Opfer* (Berlin/Münster/Wien/Zürich/London: LIT Verlag, 2001), 294ff.

19) Schlink, *Ökumenische Dogmatik*, 414.

20) 참조, Martin Kähler, *Die Wissenschaft der christlichen Lehre von dem evangelischen Grundartikel aus im Abrisse dargestellt*, 2. Aufl. (Leipzig: A. Deichert'sche Verlagsbuch-handlung, 1893), 332f.

교의학적 체계화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면 이 교리가 자의적으로 구성될 수 있고, 이로써 다양한 관심들에 따라 이 교리가 오용될 수 있다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 교리는 이러한 의구심에 맞설 수 있을까? 그래서 프린스턴의 조직신학자 다니엘 밀리오리(Daniel L. Migliore)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관한 교리를 예수의 부활 이전의 삶과 선포, 십자가,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할 것을 제안하였다.²¹⁾ 우리는 이러한 제안을 계속 이어갈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각각의 직분을 다룰 때 칼뱅과 더불어 성령론적 공감과 영향력에 주목할 것이다!

- 예수의 부활 이전의 삶과 그의 사역에 방향을 맞추는 것은 그의 왕직에 명백한 특성을 부여해 준다.
-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방향을 맞추는 것은 예언자직의 다양한 과제를 밝혀 준다.
- 부활과 부활하신 분의 현현에 대한 증언들은 대제사장직의 풍요로움을 인식시켜 준다.

II. 왕직과 그리스도와 그분께 속한 자들의 나라

예수의 부활 이전의 삶이라는 빛 속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에게 속한 자들의 왕권은 그 윤곽이 분명해지며 자유와 섬김의 사랑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펼친다. 성령의 부으심의 빛 속에서 이 왕권은 계층적이고 독재적인 교회의 형태와 간접적으로는 정치적 지배의 형태와 질서의 형식들을 전복시킨다. 왜냐하면 이 왕은 동시에 형제와 친구이며, 더 자세히 말하면 가난한 자이고 상처 받은 자이기 때

21) 참조, Daniel L.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2004), 155.

문이다. 즉, 이 왕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불쾌하고 통찰력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에서 자유를 긍정하여 추구하는 데 대한 좋은 예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왕적 형태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실천과 이를 통해 매개된 자유의 실천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 실천은 수용하는 사랑, 치유, 자유케 하는 가르침, 교육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 규정된다. 율법 전승들과의 연속성 및 비연속성 속에서 볼 때 사랑과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자유롭고 창조적인 자기 포기(Selbstzurücknahme)²²⁾로 규정되어 있다.²³⁾ 이웃을 위하여 자유롭고 창조적이며 사랑 안에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유를 매우 촉진한다. 사랑, 곧 에로스, 아가페 그리고 필리아라는 말로 불충분하게 규정되는 이 사랑이 도달하고자 하는 바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최선의 것이 되는 것이다.”²⁴⁾ ‘넓은 영역’에 각자의 발을 딛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하나님 나라 인식에 있어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자유를 촉진하는 태

22) 참조, Wolfgang Huber, *Gerechtigkeit und Recht: Grundlinien christlicher Rechtsethik*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6), 316f; Heinrich Bedford-Strohm, *Vorrang für die Armen. Auf dem Wege zur inder theologischen Theorie der Gerechtigkei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6); Michael Welker, “Routinisiertes Erbarmen und paradigmatische Öffentlichkeit. ‘Generalisierung von Altruismus’ in alttestamentlichen Gesetzesüberlieferungen,” *Altruismus: Aus der Sicht von Evolutionsbiologie, Philosophie und Theologie*, (hg.) Hans May, Loccumer Protokolle 30/92 (1996): 143-60.

23) 예수의 선포와 사역 그리고 원시 기독교의 실천적 삶은 특히 구약성서의 하나님 나라 표상과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Christian Grappe, *Le Royaume de Dieu: Avant, avec et après Jésus* [Genf: Labor et Fides, 2001]).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토라: 유대 율법에 대한 예수의 입장”이란 주제에 관해서, Gunther Wenz, *Christus*, Studium Systematische Theologie, Bd. 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1), 239ff; 이외에 Karl-Heinrich Bieritz, *Grundwissen Theologie: Jesus Christus*, KT 148 (Gütersloh: Kaiser, 1997), 47ff을 비교.

24) Michael Welker, “Romantic Love, Covenantal Love, Kenotic Love,” *The Work of Love: Creation as Kenosis*, John Polkinghorne, ed. (Grand Rapids, MI/London, UK: Wm. B. Eerdmans, 2001), 127-36.

도와 행동에 대한 의무감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유익을 기꺼이 포기하는 데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다.²⁵⁾ 이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특별히 더 가깝다고 하신 것이다.²⁶⁾ 그래서 자유케 하는 기쁨과 감사의 윤리는 박애적인 섬김의 윤리에 토대가 되는 것이다.²⁷⁾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에서 자유롭고 창조적인 자기 포기가 지니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에 대해 민감하고 감사하는 일은 사회적 습관에 의해서 자주 억압된다. 가족, 친분 관계, 교육, 의료적 보살핌, 시민사회 및 사회 조직에서 자유롭고 창조적인 자기 포기의 위대한 능력에 주목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직간접적으로 특징짓는 능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고난의 그늘 속에서뿐만 아니라, 감사의 빛 안에서도 우리는 구체적이고, 교육적이고, 치유적이고, 법치국가적이고, 교회적이고, 간문화적인 세계적 도전들에 주목해야 한다. 이 도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폭넓은 ‘도래’를 간구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도록 고무한다. 종종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놀라운 힘을 가진 왕권에 단지 직접적인 남녀 증인들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윌리엄 슈바이커(William Schweiker)는 니이버(Niebuhr)²⁸⁾ 형제와 제임스 거스탑슨

25) 참조, Wilfried Härle, *Dogmatik*, 3. überarb. Aufl.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7), 237ff; Wilfried Härle, *Ethik* (Berlin/New York: de Gruyter, 2011), 328ff, 388ff.

26) 참조, 마가복음 10:14; Marcia J. Bunge, “Children, the Image of God, and Christology: Theological Anthropology in Solidarity with Children,” *Who is Jesus Christ for Us Today?: pathways to contemporary christology*, Andreas Schuele and Günter Thomas, ed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9), 167-81; Marcia J. Bunge, *The Child in Christian Thought* (Grand Rapids, MI/Cambridge, UK: Wm. B. Eerdmans, 2001); Marcia J. Bunge, *The Child in the Bible* (Grand Rapids, MI/Cambridge, UK: Wm. B. Eerdmans, 2008).

27) 참조, J. H. Wichern은 디아코니아적 공동생활의 기본 형식으로서의 “감사의 사랑”을 강조한다. Johann Hinrich Wichern, *Schriften zur Sozialpädagogik (Rauhes Haus und Johannesstift)*, Sämtliche Werke, Bd. 4/1, (hg.) Peter Meinhold (Berlin: Lutherisches Verlagshaus, 1958), 119; Theodor Strohm, *Diakonie und Sozialethik: Beiträge zur sozialen Verantwortung der Kirche*, Veröffentlichungen des Diakoniewissenschaftlichen Instituts 6, (hg.) Klaus Müller und Gerhard K. Schäfer (Heidelberg: Heidelberger Verlagsanstalt, 1993), 138ff.

(James M. Gustafson)²⁹⁾에게서 자극을 받아 이를 계속해서 발전시켰다. 그는 '기독교적 인문주의'³⁰⁾ 역시 다른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형태의 실천적 사랑과 이웃 사랑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그들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자유를 촉진시키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와 온 세상보다 더 넓다. "너희가 나의 가장 비천한 형제자매들에게 행한 것, 바로 그것이 너희들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너희가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현존을 인식했던 안 했건 간에 말이다.³¹⁾ 이에 반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주권을 단지 '말씀과 성례전'에 제한시킨다면, 그러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의 폭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추상적이고, 우주적이며 도덕적인 연속성을 '단지 기독교적 윤리(Ethos)'를 능가하는 왕국으로 여기는 것 또한 잘못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치중립적인 도덕적 왕국은 단순한 가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³²⁾

28) 참조. H. 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New York, NY: Harper & Row, 1951); Reinhold Niebuhr,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 (New York, NY: Charles Scribner's Sons, 1955), 특히 19장.

29) James M. Gustafson, *Christ and the Moral Life* (New York, NY: Harper & Row), 1968.

30) 참조. David E. Klemm and William Schweiker, *Religion and the Human Future: An Essay on Theological Humanism* (Oxford, UK: Blackwell, 2008); William Schweiker, "Flesh and Folly: The Christ of Christian Humanism," *Who is Jesus Christ for Us Today?: pathways to contemporary christology*, Andreas Schuele and Thomas Günter, ed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9), 85-102; Liu Xiaofeng, "Sino-Christian Theology in the Modern Context," *Sino-Christian Studies in China*, Yang Huilin and Daniel H. N. Yeung, eds. (Newcastle: Cambridge Scholars Press, 2006), 70ff.

31) 참조. 마태복음 25:40, 25:34ff; John F. Hoffmeyer, "Christology and Diakonia," *Who is Jesus Christ for Us Today?: pathways to contemporary christology*, Andreas Schuele and Thomas Günter, ed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9), 150-66. 참조. H. Alfeyev, *Christ the Conqueror of Hell: the Descent into Hades from an Orthodox Perspective* (London, UK: Continuum Academic Publishing, 2009), 214.

32) 여기에 덧붙여 Judith Butler, Jürgen Habermas, Charles Taylor, 그리고 Cornel West가 벌린 유익한 토론을 보라. Eduardo Mendieta and Jonathan VanAntwerpen, eds., *The Power of Religion in the Public Sphere*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1). 참조. 히브리서 2:17, 3:1, 4:14f, 5:1ff, 6:20, 7:26ff, 8:1ff, 9:7ff, 24ff, 10:1ff, 10ff, 13:11ff.

III. 제사장직과 그리스도와 그에 속한 자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의 나라의 제사장적 차원은 히브리서의 강력한 목소리에 근거하여 자주 '대제사장과 희생제'라는 어려운 주제에 전적으로 그 초점이 놓여 있었다.³³⁾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선택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³⁴⁾ 하나님 앞에서 공홀하시고 진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이 지상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서 드린다(히 2:17).³⁵⁾

이로써 히브리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천상의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자로부터 시작하여 죽음으로 나아가는 '자기 양 떼들의 목자' 이신 분의 고통에 이르는 커다란 긴장의 곡선을 형성하고 있다(히 2:5-18, 13:20).³⁶⁾ 이렇게 히브리서는 실제로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가 가져다주는 효과의 핵심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예수의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예수의 생명에의 참여의 그 모든 영역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예수의 제사장적 사역의 단지 한 부분만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제사장직에 대한 이러한 협의³⁷⁾의 설명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33) 참조. 히브리서 2:17, 3:1, 4:14f, 5:1ff, 6:20, 7:26ff, 8:1ff, 9:7ff, 24ff, 10:1ff, 10ff, 13:11ff.

34) 시편 110:4과 창세기 14:1-24의 왕적 직분과 제사장적 직분을 따서 하나의 애매한 형태로 연결하여, 히브리서 5:6, 10, 6:20, 7:1, 10, 11, 15, 17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라고 적고 있다. 비교. Erich Gräber, *An die Hebräer (Hebr 1-6)*, EKK XVII/1 (Zürich/Braunschweig: Benziger, 1990)와 *An die Hebräer (Hebr 7,1-10,18)*, EKK XVII/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3), Bd. 1, 288ff; Bd. 2, 9f. 그래서 Gräber는 궁켈(Gunkel)을 따라서 멜기세덱을 역사적으로 "종교적 기능을 가진 가나안 도시 국가 왕과 여부스의 제사장적 왕의 원형"으로 적고 있다. Ibid., Bd. 2, 13.

35) 히브리서의 회생신학에 관하여는 Brandt, *Opfer als Gedächtnis*, 174-204를 참조.

36) 참조. John Macquarrie, *Jesus Christ in Modern Thought* (London, UK: SCM Press, 1990), 128ff; Samuel Vollenweider, "Christozentrisch oder theozentrisch?: Christologie im Neuen Testament," *Christologie*, Marburger Jahrbuch Theologie XXIII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1), 28f.

37) 이와 결합된 어려운 문제점들을 바르트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관한 교리를 다룸에 있어 대제사장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에서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심판받은 심판주"로 대치하고자 시도하였다. Barth, *Die kirchliche Dogmatik*, IV/2, 231ff.

사역은 전적으로 예배 사건이라는 폭과 다차원의 영역에서 인지되어야 한다. 프란시스 피오렌자(Francis Schüssler Fiorenza)가 예리하게 주목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현은 화평의 인사를 나누시고, 빵을 떼시며, 성경을 풀어 주시고, 세례를 명령하시고, 제자들을 선교사로 보내신 것, 곧 (초대)교회의 예배적 삶의 기본 형태들과 그 영향력으로 요약된다는 것이다.³⁸⁾ 화평의 인사, 성만찬, 세례, 성경해석, 파송 등과 같은 예배적 실존의 다성적 목소리는 제사장직과 결합되어 있는데, '모든 신자들의 만인제사장직'으로 이 직분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적 형태 속에서 구체화된다. "루터의 유명한 토르가우(Torgauer) 양식에 따르면, 예배는 바로 이것이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 주님 자신은 당신의 거룩하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과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다시금 그분과 말하기 때문이다."³⁹⁾ 크리스토프 슈뢰벨(Christoph Schwöbel)은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 사이의 이러한 예배의 대화를 아주 폭넓게 모범적으로 다음과 같이 특징짓고 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다양한 방법에서, 복음 낭독, 케리그마적 언약, 교훈적 진술, 예배 형식, 서신들에 대한 논증적 해설에서는 복음과 그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쪽에서의 우리와의 대화가 다루어진다. 이 말씀은—또한 율법으로서—하나님과 떨어진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사귀를 전해 주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의 언약인 복음에 그 핵심이 있다. 반대로 감사, 간구, 탄원, 찬양 형태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우리 쪽에서의 그리스도와의 대화 혹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

38) 참조. Francis Schüssler Fiorenza, "The Resurrection of Jesus and Roman Catholic Fundamental Theology," *The Resurrection: An Interdisciplinary Symposium on the Resurrection of Jesus*, S. Davis, D. Kendall, and G. O'Collins, eds.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213-48, 238ff; 참조. Hans-Joachim Eckstein und Michael Welker, (hg.), *Die Wirklichkeit der Auferstehung*, 4. Aufl.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10), 318ff.

39) Christoph Schwöbel, "Wer sagt denn ihr, dass ich sei?" (Mt 16,15), *Christologie*, Marburger Jahrbuch Theologie XXIII, 47; 참조. WA 49, 588, 16-18.

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욕구이며, 송영적 말씀에서는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의 참여가 중요한 것이다.⁴⁰⁾

슈뢰벨이 강조하는 바는 풍부한 소통 사건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적 현존'이 일어나며, 이 인격적 현존을 통하여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을 인식하도록 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게 이르는 적절한 통로가 열린다는 것이다.⁴¹⁾

바르게 이해되고 바르게 드러진 예배는 하나님 인식을 해명하고 견고하게 하며 깊이를 더해 주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인식은 또한 항상 구원에 대한 인식이다. 바르게 드러지는 예배는 이로써 단순히 최선을 다한 예배 혹은 정성을 다한 종교적 감정을 밝혀 주는 것만은 아니다. 참된 예배는 관계의 사건 속으로 옮겨 가는데, 이 관계 속에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의 폭을 계시한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창조주는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로 인식될 수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성령은 영, 곧 인간을 충만한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고양시키시고 부활하시고 높임 받으신 분의 삶에 참여하도록 하는 영으로 체험된다. 이러한 점을 모범적으로 루터는 사도신경의 세 번째 항목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인식하는 데 결코 ...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아버지 마음의 거울이며,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진노하시는 무서운 심판자 외에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성령을 통해 계시되지 않은 곳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무 것도 알 수 없다."⁴²⁾

40) Schwöbel, "Wer sagt denn ihr, dass ich sei?," 47.

41) Ibid., 50ff.

42) 대요리 문답, BSLK, 660; 현대 정서법에 따라서 필자가 고침.

IV. 예언자직과 그리스도와 그분께 속한 자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서도 예언자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거치는 것이 되는 직분이다.⁴³⁾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예언자적 선포 속에서 구원 선포와 심판 선언, 그리고 미래적이고 현재적이며 영원과 관계된 종말을 연결시킨다.⁴⁴⁾ 거듭해서 그는 자신의 고난에 관하여 예고하고⁴⁵⁾ 자신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지만, 자기의 주위에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그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견한다.⁴⁶⁾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한다. 이때 그의 인간적 실존 안에서의 예견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분명하게 보여주듯이⁴⁷⁾ 그를 공포와 슬픔에 빠지게 한다. “... 당신이 원하시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현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갈등에 빠졌는가? 물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도덕적, 사회

43) 이것은 그리스도를 명시적으로 예언자의 칭호와 연결시키는 신약성서의 텍스트에서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참조. 마 6:4,15, 8:28; 눅 7:16, 13:31ff; 요 6:14; 행 3:22, 7:37).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붙인 왕의 칭호와 히브리서에서 제사장 칭호는 더욱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44) 참조, Gerd Theißen und Annette Merz, *Der historische Jesus: Ein Lehrbu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1), 248, 221ff.

45) 참조. 마태복음 16:21-23, 17:22f, 20:17-19; 마가복음 8:31-33, 9:30-32, 10:32-34; 누가복음 9:22, 43b-45, 18:31-34. 그의 숙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명백성이 증대되는 것과 함께, 인자는 예루살렘에서 종교적 엘리트가 된다는 것, 그는 “인간”이 된다는 것, 또한 그는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 성서의 예언자들의 “강제된 숙명”과 고난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 Odil Hannes Steck, *Israel und das gewaltsame Geschick der Propheten: Untersuchungen zur Überlieferung des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bildes im Alten Testament, Spätjudentum und Urchristentum*, WMANT 23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67), 특히 317ff; Norbert Lohfink, “Charisma. Von der Last der Propheten,” *Unsere großen Wörter. Das Alte Testament zu Themen dieser Jahre*, 2. Aufl. (Freiburg/Basel/Wien: Herder, 1979), 241ff.

46) 참조. 마태복음 26:57f, 69-75; 마가복음 14:53f, 66-72; 누가복음 22:31-34, 54-62; 요한복음 18:12-18, 25-27.

47) 참조. 마태복음 26:36-46; 마가복음 14:32-42; 누가복음 22:39-46.

적, 문화적, 사회제도적 그리고 정치적 위기와 갈등, 곧 그들의 구체적인 주변 환경에 나타나는 위기와 갈등이 엄습해 온다. 게다가 사람들이 경제, 의학, 학문 그리고 정치에 대한 세계적 연관들 속에서 대부분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쟁들이 있다. 수많은 상황들, 곧 예언자적 인식과 예언자적 목소리가 매우 필요한 상황, 그리고 우리가 경고와 훈계, 저항과 격려, 긍정과 부정을 관찰하고자 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이러한 문제들의 방대함에만 주목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의 위력으로 인해 체념과 냉소주의만 닥칠 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투성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곧바로 성령의 새로운 부으심과 남녀 예언자 집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예언자적 임무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언자적 말씀은 일차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고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 자기 영광의 광채 이시요, 그 현실의 형상이신 ...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히 1:1-3).” 그리고 그리스도의 현존 속에 있는 예언적 말씀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묻고 그 현존과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기비판적 시험에 의존해 있다.⁴⁸⁾ 성서 전승에 따르면 오직 가까 예언자들 곧 ‘거짓말하는 예언자들’만이 정치적 지지를 받는 도덕적 다수와 이구동성으로 기꺼이, 약삭빠르게 그리고 거리낌 없이 자신을 표명한다.⁴⁹⁾ 그러나 참된 예언은 구체적인 상황들

48) 참조, Karl Barth, “Das Wort Gottes als Aufgabe der Theologie,” *Anfänge der dialektischen Theologie*, (hg.) Jürgen Moltmann (München: Christian Kaiser Verlag, 1966), 197ff; 이것과 결합된 ‘문화신학’에 대한 높은 요구 사항에 관하여는 다음의 책을 참조. S. H. Oh, *Karl Barth und Friedrich Schleiermacher 1909-1930*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05), 특히 220ff 그리고 285ff.

49) 거짓말하는 영과 거짓 예언자들의 문제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 Michael Welker, *Gottes Geist*, 87ff.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빛 안에서 진리에 대한 인식과 정의의 실현에 관하여 질문한다. 그래서 참된 예언은 그 예언이 단지 자기만의 혹은 현실적이고 공적인 견해를 진술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내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점검한다. 그러므로 예언자적인 섬김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적 섬김은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서로 밀접히 결합되어 있으며, 종종 더 중요한 자기 점검 및 비판과 연결되어 있다.⁵⁰⁾

예언자적 말씀은 또한 왕적인 섬김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언은 약자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일에 철저하게 봉사한다. 그래서 예언은 미움과 폭력을 조장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언은 ‘그에게 속한 자들’을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길에 붙들어 둔다.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사역은 ... 교회를 소망 속에 붙들어 두는 것이었고, 동시에 중재자가 오실 때까지 이 소망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신자들은 흠여짐의 시대에 너무나 탄식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은혜에서 벗어나 있었다.”⁵¹⁾ 따라서 참된 예언은 한편으로는 구제와 사랑이라는 구체적 섬김과 겹치며(왕적 직분), 다른 한편으로는 참되시고 의

50) 불확실한 증언을 증재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 David J. Garrow, *Bearing the Cross: Martin Luther King, Jr. and the Southern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New York, NY: William Morrow, 1986), 58; Thomas G. Long, *Hebrew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9에서 재인용: 몽고메리의 버스 파업 중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가족은 그들 삶의 최악의 상태에서 박해와 증오, 위협과 고난을 경험했다. 무려 40번이 넘는 전화는 그와 그의 가족에게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다. “어느 늦은 밤, 킹은 회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하나의 전화를 받았는데,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이 지역을 떠나라.’는 경고의 전화였다. 이런 협박의 전화를 받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주방 식탁에 앉아 격정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의 불안이 극에 달했을 때, 그 누군가가 그에게 ‘어떤 이의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말했다. 마침내 그는 기도했고, 그의 연합함과 용기 없음을 고백했다. 후에 그가 ‘그 당시’를 회상하며, ‘나는 내게 말하는 어떤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마틴 루터야, 의를 위해서 일어서라. 정의를 위해 일어서라. 진리를 위해 일어서라. 내가 이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것은 분명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안심시키며, 때마다 위로와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였음이 분명하였다.”

51) Calvin, *Institutio*, 307 (II, 15, 1).

로우신 하나님과 그의 길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길을 따르고자 한다(제사장적 직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언은 이 직분들과 결합하여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종말론적 희망의 호흡으로 충만해 있다.

이와 아주 상응하게 다른 두 가지 직무와 하나님 나라의 형태는 다소간 예언자적 영향력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현존에 참여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체험하면서 겸손하고 평온한 삶에 만족하고자 한다. 가난과 차별을 야기하는 현실에 대한 공적인 비판과 명확하게 결합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약자와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와 차별 대우를 받는 자들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역시 예언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교회 안팎에서의 조용한 섬김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인내하는 모범으로 말미암아 많은 요란한 도덕적, 정치적 입장 표명보다 더 깊이 일깨우고 더 강하게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섬김은 예언적인 사역들과는 구별된다. 그러한 섬김은 고난이 구체적으로 경감되게 하며 ‘하나님 나라 사역’이 창발적으로 전개되도록 한다. 이에 반하여 예언자적 증언은 비판과 자기비판을 공공연하게 선포한다.⁵²⁾

52) 참조. Walter Rauschenbusch, *A Theology for the Social Gospel*, Library of Theological Ethics (1917; repr.,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0), 특히 118ff, 131ff;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A Christian Interpretation*, Vol. II: *Human Destiny*, Gifford Lectures (New York, NY: Charles Scribner's Sons, 1964), 23-34, 244ff; 참조. Milenko Anđelić, *Christlicher Glaube als prophetische Religion: Walter Rauschenbusch und Reinhold Niebuhr*, Internationale Theologie 3 (Frankfurt: Peter Lang, 1998), 55ff, 136ff, 183ff; Johann Baptist Metz, *Jenseits bürgerlicher Religion. Reden über die Zukunft des Christentums*, Forum Politische Theologie 1, 2. Aufl. (München: Kaiser/Mainz: Matthias-Grünwald, 1980), 특히 70ff; Bedford-Strohm, *Vorrang für die Armen*, 특히 150ff;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in ökumenischen Kontexten,” *Politische Theologie*, Theologische Anstöße 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11), 1ff; 구체적인 디아코니아적 요구와의 결합에 관하여 다음의 책을 참조. Rudolf Weth, “Diakonie in der Wende vom Sozialstaat zum Sozialmarkt,” *Totaler Markt und Menschenwürde. Herausforderungen und Aufgaben christlicher Anthropologie heute*, (hg.) Rudolf Weth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6), 111-18.

이러한 증언은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에 긴장과 충동을 일으킨다. 이러한 긴장과 충동은 제사장 사역과 예언자 사역이 서로 대립될 때 특히 격렬해진다. 우리는 종교적, 정치적 간계가 아니라 신앙심을 불러일으키는 예배를 원한다! 우리는 사회 비판적 선동이 아니라 신앙과 교회의 가르침을 원한다! 조용하고 기쁨이 가득하며 신앙심을 불러일으키는 예배의 축복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이 지상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초창기부터 제사장적 섬김과 예언자적 섬김의 긴밀한 결합을 분명히 원했고 긍정하였다.⁵³⁾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이 두 가지 형태는 설교와 교육에 있어서 생동감 있고 시대와 관련된 예배적 선포 그리고 설교와 교육을 담당하는 남녀 직분자들을 학문적이며 비판적인 자세를 갖도록 교육하는 것과 결합되어 있다. 신학으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 말씀과 결합되어 있지 않은 사회적, 공동체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도덕적 비판에 대해 예언은 결코 무관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교회는 유념해야 한다. 그럼에도 듣기 좋은 소리만 내거나 진실성 없고 듣기 좋은 소리로 얼버무리는 종교적 습관들에 대한 예언의 경고는 그리 눈에 띄지 않고, 종교적으로 불러일으켜진 '만인에 대한 만인의 도덕적 투쟁'에 대한 염려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언자적 곧 하나님 나라의 예언자적 형태는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윤곽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참고 견디며 함께 괴로워하는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관점, 즉 죽음에 맞선 하나님의 싸움이나 이와 유사한 주도적인 표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가난과 약함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의 무기력함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 세상의 죄로 고통 받으시는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 세상의 권세들과 하나님의 싸움의 그늘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 이 싸움을 알기 위해 예수가 겪은 실질적인 투쟁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역사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인간에게 가져왔고 그들에게 구원의 능력과 어린아

53) 선포와 영광의 차원을 강조한 것에 관해서는, T. W. Gillespie, *The First Theologians: A Study in Early Christian Prophecy*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1994)를 참조.

이들, 약자들, 소외된 자들, 병자들, 고난 받는 자들에게 관심을 돌리는 능력을 전해 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 법, 정치, 공적 윤리와 견해에 의해 재판을 받으셨다. 그것도 포괄적인 만장일치로! 개별적인 형태의 악이 아니라 우리를 '멋지게 보호' 하는 '선한 힘들'이라는 모습을 한 '공권력들'이 십자가에서 나사렛 예수에 대항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항하여 함께 작용하고 있다. 십자가는 '죄의 힘 아래 있는' 세상을 드러내며, 예수 자신에게만 '하나님이 떠나신 밤'이 아니라 또한 이 세상에도 임박한 위험을 계시하고 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들과 우리들의 사회 공동체를 위한 모든 공적이고 힘 있는 보호 장치가—예컨대 법, 정치, 종교, 도덕 그리고 공적인 견해—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해 준다.

이러한 배경 앞에서 커다란 도전과 예언자직이 갖는 가장 큰 의미가 아주 명백해진다. 더 자세히 말하면, 섬기는 일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것 외에 기독교의 선포의 의미, 신학적 교리의 의미,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가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 이 모든 것은 예언자적 차원에서 명백해진다. 세 가지 직무는 서로 침투해 있다. 즉 세 가지 직무는 상호 순환적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다.⁵⁴⁾ 그러므로 '삼중직'이라는 말이 '세 직분'이라는 말보다 더 적합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분리할 수 없는 삼중직의 성령론적 영향력을 토대로 하여 '삼중직'에 관한 교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삼중 형태'에 관한 교리 또는 '하나님 나라의 삼중 형태'에 관한 교리와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야 한다.⁵⁵⁾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실 것이고, 이로써 자기 자신

54) 참조. Staniloae, *Orthodoxe Dogmatik* II, 90ff; 페리코레시스(Perichorese)에 관하여는, Eberhard Jünger, Art.: Perichorese, RGG 4, Bd. VI, 1109-11.

55) Paul Tillich, *Systematische Theologie*, Bd. III (Berlin: Walter de Gruyter, 1987), 25ff. 탈리히는 삶의 과정을 묘사함에 있어서 '충'이나 '평면'의 일반적인 메타포는 '차원'의 메타포를 통해 대체될 수 있으며, 차원들은 구체적인 위계질서를 확정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한다.

을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로고스로 계시하시며 또한 성령으로 그리고 사랑하시는 창조주이며 새 창조주로 자신을 계시하실 것이다. 이러한 계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속한 자들 없이는 결코'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때에 '그에게 속한 자들'은,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단지 제도적 교회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예언자적 그리고 왕적 형태에서 특히 분명히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교회의 사역 범위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포괄적이다. 오직 하나의 직분에만 큰 무게를 두는 것은 모두 위험을 초래한다. 신학이나 교회에서 왕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하나님 나라의 형태를 특히 강조하는 것은 강력한 섬김의 모습을 발전시킬 수 있지만 이때 경건과 교회의 인문주의적 세속화를 조장할 수도 있다. 예언자적 혹은 하나님 나라의 예언자적 형태를 너무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전투적이고 정치적이며 아주 예리한 학문적이고 분석적인 신학들과 경건의 모양들을 부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조는 또한 도덕적인 질식과 영적 고갈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제사장직과 이에 상응하는 하나님 나라의 형태를 매우 강하게 특권화하는 것은 보다 강한 영적, 교회적 개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또한 교회 중심적인 자기소외 그리고 예전적인 경직화를 조장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의 삼중적 또는 하나님 나라의 삼중 형태에 관한 교리는, 세 가지 형태의 순환적 결합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널리 퍼져 있는 삼중적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는 데 신학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이 교리는 포괄적이고 기독교론적이며 성령론적인 방향 설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향 설정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창조하시고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창조에 대한 인상 깊지만 잘못된 창조 표상들, 영 개념들 그리고 기타 운동들로부터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다.

참고 문헌

- Alfeyev, Hilarion. *Christ the Conqueror of Hell: the Descent into Hades from an Orthodox Perspective*. London, UK: Continuum Academic Publishing, 2009.
- Andjelic, Milenko. *Christlicher Glaube als prophetische Religion: Walter Rauschenbusch und Reinhold Niebuhr*. Internationale Theologie 3. Frankfurt: Peter Lang, 1998.
- Barth, Karl. "Das Wort Gottes als Aufgabe der Theologie." *Anfänge der dialektischen Theologie*. (Hg.) Jürgen Moltmann. München: Christian Kaiser Verlag, 1966, 197-218.
- _____. *Die kirchliche Dogmatik*. Zürich: TVZ Theologischer Verlag, 1932-1986.
- Bedford-Strohm, Heinrich. *Vorrang für die Armen. Auf dem Wege zue iner theologischen Theorie der Gerechtigkei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6.
- Bieritz, Karl-Heinrich. *Grundwissen Theologie: Jesus Christus*. KT 148. Gütersloh: Kaiser, 1997.
- Brandt, Sigrid. *Opfer als Gedächtnis: Auf dem Weg zu einer befreienden theologischen Rede von Opfer*. Berlin/Münster/Wien/Zürich/London: LIT Verlag, 2001.
- Bunge, Marcia J. *The Child in Christian Thought*. Grand Rapids, MI/Cambridge, UK: Wm. B. Eerdmans, 2001.
- _____. *The Child in the Bible*. Grand Rapids, MI/Cambridge, UK: Wm. B. Eerdmans, 2008.
- _____. "Children, the Image of God, and Christology: Theological Anthropology in Solidarity with Children." *Who is Jesus Christ for Us Today?: pathways to contemporary christology*. Andreas Schuele and Günter Thomas, ed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9, 167-81.
- Butler, Judith. *The Power of Religion in the Public Sphere*. Eduardo Mendieta and Jonathan VanAntwerpen, eds.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1.
- Calvin, Johannes.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CR 30)*. Guilielmus Baum, Eduardus Cunitz, and Eduardus Reuss, eds. Braunschweig: C. A. Schwetschke & Son, 1864.

- Eckstein, Hans-Joachim, und Michael Welker, (Hg.). *Die Wirklichkeit der Auferstehung*. 4. Aufl.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10.
- Fiorenza, Francis Schüssler. "The Resurrection of Jesus and Roman Catholic Fundamental Theology." *The Resurrection: An Interdisciplinary Symposium on the Resurrection of Jesus*. S. Davis, D. Kendall, and G. O'Collins, eds.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213-48.
- Garrow, David J. *Bearing the Cross: Martin Luther King, Jr. and the Southern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New York, NY: William Morrow, 1986.
- Gerhard, Johann. *Loci Theologici*, 1610-22. Berolini: Schlawitz, 1866.
- Gillespie, T. W. *The First Theologians: A Study in Early Christian Prophecy*.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1994.
- Grappe, Christian. *Le Royaume de Dieu: Avant, avec et après Jésus*. Genf: Labor et Fides, 2001.
- Gräber, Erich. *An die Hebräer (Hebr 1-6)*. Evangelisch-katholischer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XVII/1, Zürich/Braunschweig: Benziger, 1990.
- _____. *An die Hebräer (Hebr 7,1-10,18)*. Evangelisch-katholischer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XVII/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3.
- Gustafson, James M. *Christ and the Moral Life*. New York, NY: Harper & Row, 1968.
- Härle, Wilfried. *Dogmatik*. 3. überarb. Aufl.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7.
- _____. *Ethik*. Berlin/New York: de Gruyter, 2011.
- Hoffmeyer, John F. "Christology and Diakonia." *Who is Jesus Christ for Us Today?: pathways to contemporary christology*. Andreas Schuele and Thomas Günter, ed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9, 150-66.
- Huber, Wolfgang. *Gerechtigkeit und Recht: Grundlinien christlicher Rechtsethik*.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6.
- Kähler, Martin. *Die Wissenschaft der christlichen Lehre von dem evangelischen Grundartikel aus im Abrisse dargestellt*. 2. Aufl. Leipzig: A. Deichert'sche Verlagsbuchhandlung, 1893.
- Klemm, David E., and William Schweiker. *Religion and the Human Future: An Essay on Theological Humanism*. Oxford, UK: Blackwell, 2008.
- Lohfink, Norbert. "Charisma. Von der Last der Propheten." *Unsere großen Wörter. Das Alte Testament zu Themen dieser Jahre*. 2. Aufl. Freiburg/Basel/Wien:

- Herder, 1979, 241-51.
- Long, Thomas G. *Hebrew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 Macquarrie, John. *Jesus Christ in Modern Thought*. London, UK: SCM Press, 1990.
- Metz, Johann Baptist. *Jenseits bürgerlicher Religion. Reden über die Zukunft des Christentums*. Forum Politische Theologie 1. 2. Aufl. München: Kaiser/Mainz: Matthias-Grünwald, 1980.
- Migliore, Daniel L. *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2004.
- Niebuhr, H. Richard. *Christ and Culture*. New York, NY: Harper & Row, 1951.
- Niebuhr, Reinhold.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 New York, NY: Charles Scribner's Sons, 1955.
- _____.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A Christian Interpretation*, Vol. II: *Human Destiny*. New York, NY: Charles Scribner's Sons, 1964.
- Oh, S. H. *Karl Barth und Friedrich Schleiermacher 1909-1930*.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05.
- Rauschenbusch, Walter. *A Theology for the Social Gospel*. Library of Theological Ethics. 1917. Reprint,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0.
- Scheeben, Matthias Joseph. *Handbuch der katholischen Dogmatik*. Bd. 5.2. Freiburg: Herder & Co, 1954.
- Schleiermacher, Friedrich. *Der christliche Glaube nach den Grundsätzen der evangelischen Kirche im Zusammenhange dargestellt*. Bd. 2. (Hg.) Martin Redeker. 7. Aufl. Berlin: de Gruyter, 1960.
- Schlink, Edmund. *Ökumenische Dogmatik. Grundzüg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3.
- Schweiker, William. "Flesh and Folly: The Christ of Christian Humanism." *Who is Jesus Christ for Us Today?: pathways to contemporary christology*. Andreas Schuele and Thomas Günter, ed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9, 85-102.
- Schwöbel, Christoph. "Wer sagt denn ihr, dass ich sei?"(Mt 16,15). *Christologie*. Marburger Jahrbuch Theologie XXIII.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1, 41-58.
- Staniloae, Dumitru. *Orthodoxe Dogmatik II*. Ökumenische Theologie 15. Zürich:

- Benziger/Gütersloh: Gütersloher, 1990.
- Steck, Odil Hannes. *Israel und das gewaltsame Geschick der Propheten: Untersuchungen zur Überlieferung des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bildes im Alten Testament, Spätjudentum und Urchristentum*. WMANT 23.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67.
- Strohm, Theodor. *Diakonie und Sozialethik: Beiträge zur sozialen Verantwortung der Kirche*. Veröffentlichungen des Diakoniewissenschaftlichen Instituts 6. (Hg.) Klaus Müller und Gerhard K. Schäfer. Heidelberg: Heidelberger Verlagsanstalt, 1993.
- Theißen, Gerd, und Annette Merz. *Der historische Jesus: Ein Lehrbu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1.
- Tillich, Paul. *Systematische Theologie*. Bd. III. Berlin: Walter de Gruyter, 1987.
- Trepel, P. *Dogmatik der orthodoxen katholischen Kirche (griechisch)*. Bd. II. Athen: Adelphotes Theologon "Zoe", 1959.
- Vollenweider, Samuel. "Christozentrisch oder theozentrisch?: Christologie im Neuen Testament." *Christologie*. Marburger Jahrbuch Theologie XXIII.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1, 19-40.
- Von Aquin, Thomas. *Die Summa theologiae*. (Hg.) Andreas Speer. Berlin: Walter de Gruyter, 2005.
- Wainwright, Geoffrey. *For Our Salvation: Two Approaches to the Work of Christ*.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1997.
- Welker, Michael. "Routinisiertes Erbarmen und paradigmatische Öffentlichkeit. 'Generalisierung von Altruismus' in alttestamentlichen Gesetzesüberlieferungen." *Altruismus: Aus der Sicht von Evolutionsbiologie, Philosophie und Theologie*. (Hg.) Hans May. Loccumer Protokolle 30/92 (1996): 143-60.
- _____. "Romantic Love, Covenantal Love, Kenotic Love." *The Work of Love: Creation as Kenosis*. John Polkinghorne, ed. Grand Rapids, MI/London, UK: Wm. B. Eerdmans, 2001, 127-36.
- Wenz, Gunther. *Christus*. Studium Systematische Theologie. Bd. 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1.
- Weth, Rudolf. "Diakonie in der Wende vom Sozialstaat zum Sozialmarkt." *Totaler Markt und Menschenwürde. Herausforderungen und Aufgaben christlicher Anthropologie heute*. (Hg.) Rudolf Weth.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 1996, 111-18.
- Wichern, Johann Hinrich. *Schriften zur Sozialpädagogik (Rauhes Haus und Johannesstift)*. Sämtliche Werke. Bd. 4/1. (Hg.) Peter Meinhold. Berlin: Lutherisches Verlagshaus, 1958.
- Xiaofeng, Liu. "Sino-Christian Theology in the Modern Context." *Sino-Christian Studies in China*. Yang Huilin and Daniel H. N. Yeung, eds. Newcastle: Cambridge Scholars Press, 2006, 52-89.

Abstract

Spirit-Christology: From the Threefold Office of Christ to the Threefold Gestalt of the Reign of God

Michael Welker

The article sets out from two brilliant insights of the great reformer John Calvin: First, the resurrected and exalted Christ is not present without the Holy Spirit. In the power of the Spirit the witnesses and disciples of the resurrected and exalted Christ are drawn into his post-Easter life. Second, if we want to understand who Jesus Christ was and what God the Father wanted him to be and to do for us, we should look at his threefold office: the kingly office, the prophetic office, and the priestly office.

The article then shows that the teaching of the threefold office of Christ has been accepted by virtually all churches and confessions across the globe. In order to provide orientation for the teaching and life of the churches it is advisable to apply the insights about the threefold office to: a) the pre-Easter life of Jesus Christ (for the kingly office), b) the cross of Jesus Christ (for the prophetic office), c)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or the priestly office).

This provides a basis for an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tiated fellowship of Christ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t enables us to see how the resurrected and elevated Christ shapes his coming reign in the power of the Spirit. In the diaconal works of love and care, in the prophetic works of truth-and justice-seeking communities, and in the

worshiping, liturgical and doxological life of his disciples, he assembles, enlivens and ennobles his post-Easter body for his coming reign on earth and for eternal life.

영산의 신학 단초와 그리스도론*

배 재 욱

| 영남신학대학교, 신약학 |
bjaewoog@hanmail.net

국문 초록

영산 신학의 세 가지 단초는 1. 신앙, 2. 구원, 3. 치유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영산의 신학 단초를 통해 영산의 그리스도 이해를 영산 신학의 테두리 속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영산 사상의 출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는 다른 것보다 앞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영산은 그리스도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영산의 이러한 관심은 그의 어린 시절의 체험적인 신앙과 관련된다. 영산은 죽을 고비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십자가' 중시 신앙을 강조한다. 이것과 아울러 영산에게서 '신앙'과 '구원', '치유'가 강조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신앙', '구원', '치유'는 영산에게서 신앙적인 핵심 요소가 되고 있고 이러한 요소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론과 연결되어 나타난다.

영산은 "새로운 피조물"이란 설교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 인간 구원과 그리스도론을 연결하여 정리한다. 영산의 말처럼 '세상의 구세주'(요 4:42)이신 그리스도를 바른 지식으로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찾게 된다.

영산은 신앙을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과 관련하여 생각한다. 그는 신앙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 즉 '삼중축복의 실천적 생활'을 강조한다. 영산에게 치유는 신앙과 깊은 연관 속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난 치유는 어느 한도까지는 가능할

주제어

성령 기독론, 그리스도의 삼중직, 하나님의 통치, 왕직, 예언자직, 제사장직, 예수 그리스도

Spirit-Christology, the Threefold Office of Christ, the Reign of God, the Kingly Office, the Prophetic Office, the Priestly Office, Jesus Christ

원고 접수 : 2013. 5. 10.

논문발표 : 2012. 3. 26.

수정본 접수 : 2013. 6. 14.

게재승인 : 2013. 5. 28.